

이탈리아의 불안정 노동자와 노조

Alice Mattoni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 정치사회학 부교수)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내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s*)를 동원하는 다양한 형태를 종단적(*longitudinal*) 관점에서 살펴본다. 많은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임시직 노동자 관련 사안을 의제로 다루는 일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사측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요구에 따라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를 지지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탈리아 노조는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특수한 필요에 따라 한계노동자(*marginal workers*)의 증가를 적어도 용인하거나 그러한 증가 추세에 기여했으며, 그와 동시에 그들을 새로운 범주의 조합원으로 적극 조직하려는 시도는 꺼려했다. 결과적으로 임시직 노동자들은 근로조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외로이 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노동 이슈를 둘러싼 분쟁정치 속에서 노조로부터 독립적으로, 때때로 노동쟁의 기간 중 노조와 대립적인 전략적 상호작용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임시직 노동자들의 풀뿌리 단체가 부상했다(Choi and Mattoni, 2010). 동시에 급진 노조와 일부 사회운동조직과 같은 기존의 다른 행위자들 또한 임시직 관련 논쟁의

* 이 글의 원문은 Juergen Groete와 Claudius Wagemann가 편집한 *Social Movements and Organized Labor: Passions and Interests*(London, Routledge, 2018)의 pp.171~192에 “Conflict,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 the Realm of Labour. Trade Unions and Precarious Workers in Italy”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장에 뛰어 들었다(위의 글). 결과적으로 불안정성(precariety)을 주제로 한 논쟁의 물결은 1990년대 중반에 일기 시작해서 2000년대 전반기에 정점을 찍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긴축재정기에도 지속되었다. 이하에서는 논쟁의 물결을 이 세 시기로 나누어 한계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및 불안정 노동자로 구성된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력과 노조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 종단적 관점에서 본 이탈리아의 노조와 불안정 노동자 간 관계

1995~2000년

1990년대 이탈리아 노총들은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다양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Baccaro et al., 2003). 1997년 프로디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내각이 도입한 소위 *트레우 개혁(Pacchetto Treu)*을 통해 파견업체 설립이 허용된 이후, 1998년 노총들은 파견노동자 사용을 규제하고 전국단위의 단체교섭에 착수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인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와 전국협약(national agreement)을 체결했다(Paperella, 1998). 이후 두 차례 갱신된 동 협약을 통해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파견노동자를 위한 노사기구들이 설립되어 사용자들이 재원을 부담하고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Leonardi, 2008). 노조들은 입법 로비, 공공정책결정, 그리고 특히 사용자단체와의 사회적 협의(concertation)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다른 사회집단과의 연합형성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간주하지도 않았다”(Baccaro et al., 2003: 122). 따라서 어떤 면에서 노총들은 대내외적 이해대변 측면에서 임시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옵션을 선택했다.

반면 급진 노조들은 이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1990년대에 걸쳐 이탈리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종종 노총들과 경쟁하기도 했던 급진 노조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해가 대변되기를 원했던 불안정 노동자들에 점점 더 중점을 두었다. 급진 노조들은 주로 특정 산업부문(sectors)과 지부(branches)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민간기업과 공공단체 양측에서 파업 및 집단행동과 같은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적 도구들을 활용했다. 급진적 노조활동가

들이 불안정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비중을 확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이해대변 채널을 찾고 있었고 급진 노조는 이를 기성 노총과 경쟁할 새로운 영역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기여한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있었다. 첫 번째 관련 요인은 실업, 불안정성, 사회적 배제 등에 반대하여 1997년에 조직된 초국가적 차원의 유럽 행진에 급진 노조들이 참여한 것이었다. 이 행진은 유럽 차원의 전 지구적 정의운동(European global justice movement)으로 전개된 최초의 시위 중 하나였다(Chabanet, 2008). 두 번째로 노동계(labor realm) 밖에 위치해 있던 사회운동 행위자들은 급진적 노동조합주의 내에서 불안정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급진적 진보정치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불안정성을 특정 사업장 내 노동쟁의보다 더 포괄적인 조치를 통해 다루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삶(a new form of living)으로 간주했다. 활동가 집단과 급진 노조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불안정 노동자 이슈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 더욱 중요하게는 불안정성을 다루기 위해 제안한 해법에 있었다. 활동가 집단은 노동계 외부자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복지제도의 급진적 개혁과 연계된 중장기적 해법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급진 노조는 노동계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불안정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직면하는 특정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구체적 관행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안정 노동자들은 1990년대 말 노총들의 의제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임시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전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탈리아 내 사회운동집단들과 자체적으로 조직화한 임시직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해 불안정성 문제가 노총의 비핵심 지부로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이하 CGIL)의 사례를 들 수 있다. CGIL의 사례는 현안과 관련된 논쟁적 분야(contentious field)로부터 오는 압박이 어떻게 노조 자체 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CGIL은 노총체계 외부에서 발전한 노동조합주의 관행 중 일부를 채택했다.

1995년 밀라노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한 전문직 프리랜서 집단은 소속 회원들에게 법률 및 재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자·컨설턴트 연합(Collaboratori e Consulenti Associati,*

이하 CCA)을 설립했다. CCA와 CGIL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몇 차례 이루어진 후, CGIL은 CCA를 산하 노조로 받아들이고 전문직 프리랜서 및 협업자들을 대변하기로 결정했다. CCA는 이후 CAA 페가수스(CAA-Pegaso)로 명칭을 변경했다. CAA 페가수스는 199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안정 노동력 내의 한계노동자 관련 이슈를 보다 명시적인 방법으로 의제에 포함하기 위해 의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변화의 신호는 또 한 차례 이루어진 지부의 명칭 변경을 통해 나타났다. CAA 페가수스는 1997년에 신노동정체성(Nuove Identità di Lavoro, 이하 NIDIL)으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전국단위 노조로 변신했다(Regalia, 2009). 전문직 프리랜서들의 자율적 조직에 뿌리를 둔 NIDIL의 설립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수용하여 조합원 수를 늘리려는 CGIL의 전략적 구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설립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는 노조 간부들과 갈등을 경험한 다수의 전문직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이탈했다. 이후 NIDIL은 당초 의제의 범위를 변경하여 준종속 불안정 노동자(para-subordinated precarious workers)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었다(Ballarino, 2006). 그러나 전국단위의 교섭을 전개할 역량이 부족했던 NIDIL 노조활동가들은 특정 노동자 집단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기업의 사용자와 분권화된 교섭을 진행했다.

2001~2007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불안정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불안정성 관련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운동조직과 풀뿌리 단체는 지역적, 전국적 및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수준에서 불안정성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불안정성에 반대하는 동원이 풀뿌리 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Mattoni, 2012).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총들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노총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2000년대 초반 지역수준의 사업장 특수적(workplace-specific) 투쟁에서는 노총들이 항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1990년대에는 논쟁적 분야에서 노총, 사회운동조직 및 급진 노조 간 협업의 여지가 있어 보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 관련 논쟁은 급속도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CGIL의 경우 NIDIL을 통해 임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역할조차

도 대개는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하위전략(a strategy of subordination)’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노총들은 여전히 임시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수준의 특정 사업장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결국 다른 유형의 집합적 행위자들(collective actors)이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편 불안정 노동자들은 노총들이 태도를 전환하여 불안정성 이슈를 의제에 포함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노총들로부터 자율적으로, 경우에 따라 노총들과 대립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직화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이해대변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조건의 개별화와 노동권 분쟁의 개별화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에, 궁극적으로 노조 자체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Lastrico, 2014: 167~168).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불안정한 지위의 연구원들의 투쟁을 들 수 있다. 공립대학 제도의 개혁을 위해 입안된 모라티 법안(Ddl Moratti)에 항의하는 대규모 동원이 2005년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급진 노조들을 포함한 노조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라티 법안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대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되었다. 불안정한 지위의 연구원들은 노조를 자신들의 정당한 협력자(legitimate ally)로 인정하지 않았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있었던 불안정성과 관련된 많은 투쟁과 마찬가지로, 불안정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내부자인 전일제 정규직의 특권 옹호를 선호하는 노총들을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로 간주했다(Lastrico, 2014: 170~171). 시위를 조직한 활동가들에 따르면 전국적 차원의 협력 역량 부재가 노조와 풀뿌리 운동 양측 모두에 패인으로 작용했다. 모라티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노총들의 일반적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급진 노조는 종종 불안정 이슈와 관련하여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노총들은 불안정 노동자에 대해 배제전략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태도는 풀뿌리 단체의 불안정 노동자 동원 및 사회운동조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즉 갈등적 상호작용(conflicting interaction)의 확산, 전략적 대안의 제안, 마지막으로 특히 상징적 특징과 관련한 논쟁의 추가적 확산 등이다.

먼저 갈등적 상호작용은 특정 사업장의 지역수준에서 특히 나타났는데, 노총과 자발적으로 동원한 불안정 노동자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반대로 노

총들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배제전략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노총 자체가 항의의 대상이 되었다. 관련 사례로 *통계청불안정노동자단체(Precari Istat Collective, 이하 Precari Istat)*의 투쟁을 들 수 있다. 사업장 내 동원과 관련하여, Precari Istat과 노총 간의 의견 차이는 2004년에 열린 내부적인 선거후보 선정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Precari Istat은 선거 전 노조와 통계청 사무처가 암묵적 합의를 통해 노총 출신 후보를 지지했다고 노조 측을 비난했다. 반면 노조는 Precari Istat의 급진성과 폭력성을 비난했다(Lastrico, 2014: 172~173).

둘째로, 노총과 불안정 노동자 조직 간 균열은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자체적 방식으로 풀뿌리 노동조합주의(*grassroots unionism*)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노조와의 협력을 대체할 대안적 해법을 선택했다. 지역적 및 전국적 수준 모두에서 불안정성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의 정치단체 및 *자율적 사회센터(centri sociali autonomi)*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비공식 결사체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자의 풀뿌리 단체들은 무기계약 혹은 단기계약을 불문하고 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영향은 주로 동원의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주의 영역 내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련 사례로 2004년 밀라노 인근 도시에서 공장 폐쇄에 반대한 알파로메오(Alfa-Romeo) 직원들의 투쟁을 들 수 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벌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물인 *프레카리오 성인(San Precario)*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들의 수호성인 *로메오 성인(San Romeo)*을 만들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슈퍼마켓에서 항의하는 동안 프레카리오 성인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알파로메오 직원들은 파업과 피켓시위 행진에서 로메오 성인을 등장시켰다(Mattoni, 2008). 이 특정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풀뿌리 단체 및 자율적 집단과 기성 노조 조합원들 간에 이러한 확산 메커니즘(*mechanism of diffusion*)을 지원하는 중개인 역할을 급진 노조가 했다는 사실이다.

2008~2014년

2008년 경제위기는 특히 EU 남유럽 회원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탈리아 역시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 시기에 불안정 노동 이슈는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비하여 공공토론(public debate)의 중심에서 다소 멀어졌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불안정성과 가장 관련되어 있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정규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정성이 점차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불안정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한 반면, 공공토론의 중심은 경제위기의 전반적 측면과 경제위기가 이탈리아의 실업 및 빈곤층 확대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불안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노동력 내부에서 더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시위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구호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긴축조치 반대 시위에도 등장했다. 일례로 2013년 10월 19일 로마에서 열린 전국 차원의 대규모 거리 시위를 들 수 있다.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모이면서 과거 수년간 이탈리아가 경험한 투쟁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예컨대 북부 토리노(Turin)까지 운행하는 고속열차사업을 산골 마을 발 디 수사(Val di Susa)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항의 및 주택 소유권 회복을 위한 빈 건물 점거운동 등이 눈에 띄었다. '하나로 통합된 노력: 모두를 위한 주택과 소득 회복'이 시위의 대표 슬로건이었다.

부채위기와 금융위기 시기에 불안정 노동자들의 자율적 집단(autonomous groups)은 불안정성 이슈의 정치사회적 가시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았다. 또한 응집력 있는 정치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목표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특정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생활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Mattoni and Vogiatzoglou, 2014) 이러한 주장을 이탈리아 내 빈곤 및 소외 확산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현안들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불안정 노동자 계급을 의미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내의 자율주의 분파(autonomous fractions)들은 특정 노동시장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노총들과도 도구적 관계(instrumental relationships)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2008년에 조직화를 시작한 불안정한편집자네트워크(Network of Precarious Editors / Rete dei Redattori Precari)를 들 수 있다. 기존 노조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성된 이 네트워크는 더 나은 노동조건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편집자들에게 발언권과 계약에 근거한 권한(contractual power)을 줄 수 있는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을 맡았다(Redazione Precaria, 2008). 불안정한편집자네트워크는 여러 사업장 내외부에서 수개월간 동원 활동을 전개한 이후, 이탈리아 주요 노총인 CGIL과 통신 부문(communication sector)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CGIL 산하 노조인 SLC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CGIL과 네트워크 간의 일시적 협업이 진행되었다. CGIL은 결국 출판부문 종사자들의 전국협약(national contract) 갱신을 위해 교섭 개시를 요구하는 네트워크 측의 요구 중 일부를 CGIL의 전반적인 정강정책(platform)에 포함하였다.

이 사례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자율적 집단과 노조 사이에 도구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단지 여러 다른 잠재적 동맹 중 하나라는 관점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자 집단은 노조와의 협력을 일시적 관계로 유지하여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노조는 자율적인 노동자 집단의 경계(boundary) 밖에 머무는 동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동원 형태는 2008년 이전에 이미 나타난 형태와 일종의 연속성(continuity)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연속성(discontinuity) 역시 눈에 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중에도 쉬지 않고 불안정 노동 관련 동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동시에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했다(Mattoni and Vogiatzoglou, 2014). 이를 통해 불안정 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불안정 노동자의 생활환경 및 노동 조건 개선은 여전히 힘겨운 목표로 남아 있다.

또 하나의 예로 경제위기 이후 이졸라(Isola) 지역에 설립된 활동가 점유공간인 피아노 테라(Piano Terra)와 불안정한편집자네트워크 간 협업을 통해 밀라노에 개설된 공동사무 공간(Spazio Ufficio Condiviso, 이하 SUC)을 들 수 있다. SUC는 기업에서 '신입/준사원(associates)' 지위로 고용되어 적절한 작업공간이 없는 불안정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에게 공동의 집합적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SUC를 관리하는 활동가들은 상호신뢰 구축, 경험 교류, 근로조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립되기 쉬운 불안정한 프리랜서들 간에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어떤 의미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자율적 집단은 그 어떤 노총과도 독립적으로 동료 노동자 및 불안정한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을 포함한 그들의 지지층(constituency)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 결론

이 글에서는 사회운동조직과 불안정 노동자들의 풀뿌리 단체 등과 같이 불안정성과 관련된 논쟁적 분야에서 동원활동을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자들과 노총들 사이에 형성된 여러 유형의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양자 간 관계의 다면성을 특징짓는 일련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조합원 수의 급격한 감소와 그로 인한 신규 조합원 모집 및 새로운 투쟁 모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 관련 (논쟁적) 분야에서 노조와 풀뿌리 활동가들 간의 광범위한 협업을 선형적으로(*a priori*) 당연한 귀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풀뿌리 정치행위자들의 압박이 의미 있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이탈리아 노총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inclusion)’과 ‘참여(engagement)’ 전략에 기반을 둔 변혁의 논리를 채택하지 않았다.

상기 글의 내용과 이탈리아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노조가 제도적 자원과 정책결정 영역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력을 조직하고 동원할 가능성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명백한 역설도 존재한다. 불안정성 관련 논쟁적 분야에서 기성 노조가 아닌 다른 행위자들이 노조의 역할을 잠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노조의 이러한 배타적 태도는 장기적으로 여론과 정치 영역에서 노조의 영향력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성 이슈를 중심으로 연합이 형성되는 경우, 이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풀뿌리 단체, 급진 노조, 기타 사회운동조직 등 기성 노조의 통제 밖에 있는 행위자들 간에 형성된 연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합은 종종 일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을 갖긴 했지만,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내 임시직에 반대하는 여러 동원형태들이 지역적, 전국적, 심지어 유럽 차원에서 발생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다.

종합하자면, 이탈리아의 불안정 노동자 동원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운동 행위자들이 비록 외부자의 입장에서 노조의 구조, 이해관계,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 관행과 관련하여 전환적 잠재력(transformative potential)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주의의 개념 자체는 더 이상 노조활동가들의 손에만 좌우되지 않는 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KLI**

참고문헌

- Baccaro, L., Hamann, K. & Turner, L.(2003), “The Politics of Labour Movement Revitalization: The Need for a Revitalized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9(1), pp.119-133.
- Ballarino, G.(2006), “Between institutionalized concertation and experimentation. The regulation of new forms of employment in Lombardy,” In I. Regalia, ed. *Regulating New Forms of Employment: Local Experiments and Social Innovation in Europe*, London: Routledge, pp.110-140.
- Chabanet, D.(2008), “When the Unemployed Challenge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Marches as Externalization of Protest,”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13(3), pp.311-322.
- Choi, H.-L. & Mattoni, A.(2010), “The Contentious Field Of Precarious Work In Italy. Political Actors, Strategies And Coalition Building,” *Working U.S.A.* 13(2), pp.213-243.
- Lastrico, V.(2014), In E. Armano & A. Murgia(eds.), *Generazione precaria: Nuovi lavori e processi di soggettivazione*. Bologna: I Libri di Emil, pp.167-183.
- Leonardi, S.(2008), “Union Organisation of Employees in Atypical and Precarious Work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Action Research* 4(3), pp.203-224.
- Mattoni, A.(2012), *Media Practices and Protest Politics. How Precarious Workers Mobilise*, Farnham,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
- Mattoni, A.(2008), “Serpica Naro and the Others. The Media Sociali Experience in Italian Struggles Against Precarity,” *PORT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Studies* 5(2), Available at: <http://epress.lib.uts.edu.au/journals/index.php/portal/article/view/706> [Accessed April 4, 2014].
 - Mattoni, A. & Vogiatzoglou, M.(2014), “Italy and Greece, before and after the crisis. Between mobilization and resistance against precarity,” In G. Geuens & J. Hamers(eds.), *La radicalité ouvrière en Europe. Acteurs, pratiques, discours*. Available at: <http://orbi.ulg.ac.be/handle/2268/163109> [Accessed May 7, 2014].
 - Paperella, D.(1998), *Central agreement on temporary agency work signed*, Eurofound. Available at: <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articles/central-agreement-on-temporary-agency-work-signed> [Accessed May 26, 2015].
 - Redazione Precaria(2008), “Chi siamo,” *Rete Redattori Precari*. Available at: <http://www.rerepre.org/index.php?/2008121048/redattori-editoriali-precari/redattori-editoriali-precari-chi-siamo.html> [Accessed November 14, 2013].
 - Regalia, I.(2009), *Regolare le nuove forme di impiego. Esperimenti locali di flexicurity in Europa*, FrancoAngeli.